

## SK케미칼, 노사평화 “상생” 선언

SK케미칼은 6월23일 노사 대표가 한 자리에 모여 상생의 노사 문화 정착을 위해 노사 평화 선언문에 서명했다고 6월26일 발표했다.

신승권 생명과학부문 대표와 이기성 오산공장 노동조합 위원장은 오산공장에서 개최된 노사평화선언식에서 노사간의 믿음과 신뢰를 바탕으로 신나는 일터를 만들어 갈 것이라며 노사 평화 선언문에 공동 서명했다.

SK케미칼은 40년 동안 한번도 노사 분규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.

SK케미칼 관계자는 “노사평화 선언은 SK케미칼의 노사 상생 문화의 상징”이라고 말했다.

신승권 대표는 “평화선언이 있기까지 노력해 준 노동조합에 감사한다”며 “회사의 비전인 토탈헬스케어컴퍼니 달성을 위해 상생 발전하는 노사 관계를 이룰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자”고 말했다.

이기성 위원장은 “대화와 협력을 바탕으로 노사가 함께 신바람 나는 직장을 만들고 있는 SK케미칼의 노사 문화는 향후 노사문화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자리 잡을 것”이라고 화답했다.

<화학저널 2008/06/26>